

알코올 의존증은 식욕촉진 호르몬 분비 이상

글_ 김대진 가톨릭대학교 정신과 교수 kdj922@chollian.net

왜 알코올 의존환자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실까? 알코올 의존 환자는 술을 마실 땐 거의 안주를 먹지 않고 술만 마신다. 반면에, 안주를 많이 먹는 사람은 대개 알코올 의존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식욕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 알코올 의존이 되는 것이 아닐까?

폭식·거식증 환자도 그렐린 분비 불규칙

알코올은 담배와 더불어 정신활동물질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남용되는 뇌중추억 체제로 심혈관과 암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질환의 발생과 재발에 관련된 여러 인자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가 없는 가운데, 최근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폭식증이나 거식증 등 섭식장애 환자처럼 식욕촉진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코올 의존증 입원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우리 몸에는 그렐린(Ghrelin)이라는 식이조절호르몬이 존재하며, 이는 렙틴과 길항 작용을 함으로써 식욕 및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상인에게서 배가 고프면 분비가 늘어나고 식사 후에는 줄어들지만, 폭식증이나 거식증 등 섭식장애 환자나 비만인의 경우 그렐린이 불규칙하게 분비된다. 이러한 그렐린의 작용은 뉴로펩타이드

Y, 그리고 아고티와 연관된 펩타이드(Agouti-related Peptide)라는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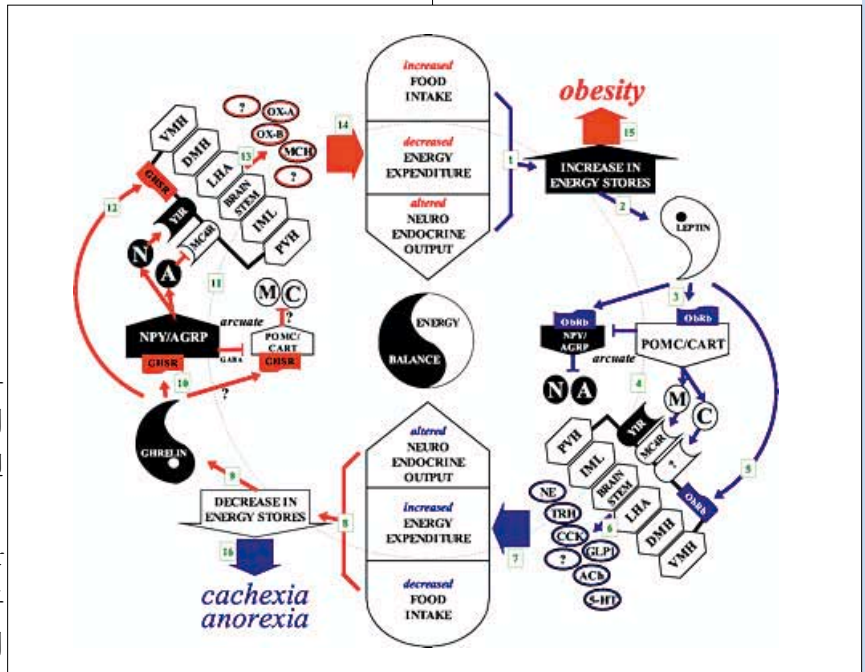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렙틴과 매개작용을 하는 뉴로펩타이드 Y가 알코올의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물실험연구에 의하면, 렙틴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어지는 뉴로펩타이드 현상은 알코올 섭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알코올 의존에 있어서의 식이조절호르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렙틴과 길항작용을 하면서 식욕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렐린이 심리적



측면과 신경회로선상에서 알코올의존에 중요한 병리기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음주갈망행동의 조절인자로서 새로운 원인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47명의 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들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후 일정 금주기간이 지난 알코올 의존환자들의 그렐린 혈장농도와 정상인의 그렐린을 비교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그렐린과 단주기간 중의 음주갈망 및 음주행동 패턴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금주시 그렐린의 혈장농도 증가

연구 결과, 일정 금주기간이 지난 알코올 의존환자는 정상인보다 그렐린의 혈중농도가 증가했으며, 알코올 의존환자 대부분은 배고픔과 무관하게 그렐린의 농도가 항상 높게 유지되었다. 또한 금주기간이 길수록 그렐린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렐린이 매개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 뉴로펩타이드 Y를 증가시켜 술에 대한 갈망과 선호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식욕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단주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그렐린과 렙틴 혈중농도를 알코올 사용중, 금단시기, 단주시기로 나누어 측정하고 알코올갈망과 연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 중 식욕과 관련된 새로운 약물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술이 당기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알코올 의존뿐 아니라 차후 니코틴의존에 있어서도 이번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보통 담배를 끊으면 식욕이 증가하게 되고, 많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담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향후 니코틴의존에서 이러한 식욕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쓴이는 가톨릭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중독의학을 연수하였으며, 현재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